

2012. 05 / 06 |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 제 25호



COVER STORY

유학생 피부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 차앤박피부와

2012 유학생의 차앤박피부와 치료기

HOT CLINIC



유학생 피부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 차앤박피부와
2012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앤박피부와 치료기

PAGE : 02

편인터뷰



배우 왕빛나
차앤박과의 인연,
내 빛나는 피부의 유지 비결이죠!

PAGE : 06

췌인



차앤박피부와 양재본원
16년의 나이테! 우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아저

PAGE : 08

포스트잇



수줍은 내 피부, 광명찾다
여드름 자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꿀 수 있게 되다

PAGE : 11

Dr. 지식인



레이저로 치료하면 제모를 완벽하게 ...?
모발클리닉
한일웅 대표원장

PAGE : 13

CNP NOW



고객을 품은 차앤박피부와, 그 내공을 누설하다
2012 차앤박네트워크
상반기 워크샵

PAGE : 15

2012 유학생의 차안박피부과 치료기 유학생 피부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 차안박피부과

유학생들의 한국러시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모처럼 고국을 찾는 그들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 한국에서의 플랜을 짜는 때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유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피부치료이다. 지난 3년 동안 차안박피부과를 방문한 유학생의 증가폭을 보더라도 그들의 관심사 중 피부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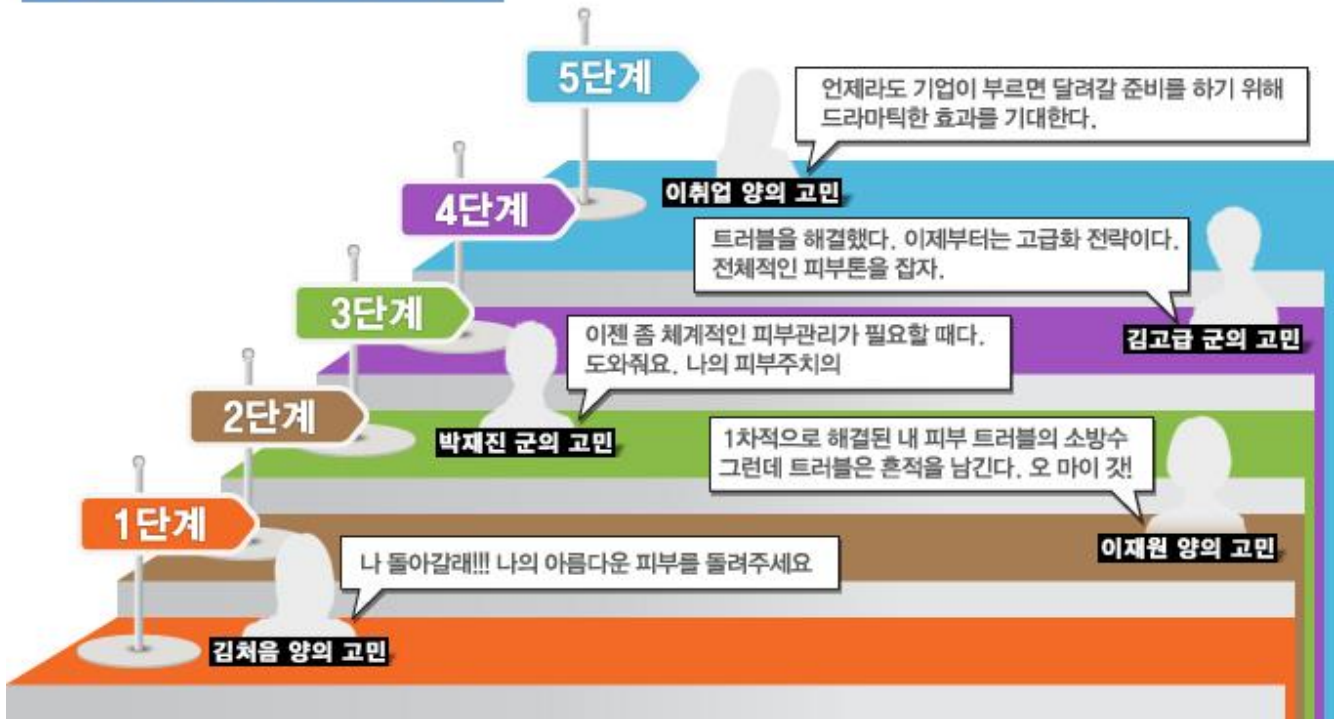
**이맘때가 되면 차안박피부과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키워드로 '유학생' 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명실상부 차안박피부과는 유학생 피부 치료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방문지 중 0순위로 꼽힐 뿐 아니라
재원 사례도 늘어나 차안박피부과에서의 치료기를 공유하고 있다.
유학생 피부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로 자리 잡은 차안박피부과를
방문한 이들의 고민과 처방을 엿보도록 하자.



차앤박피부과의 유학생 단계별 피부과 치료



1단계

여드름만은 잡자 스피쿨링 - A, PDT

미국유학생 김처음양! 유학길에 오른지 1년 차!! 정신없이 적응을 하다보니 벌써 일년이 지났다는 게 그녀의 설명. 낯선 환경과 문화적인 충격은 여러가지 징후로 나타났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뒤집어진 피부. 염증으로 시작해서 염증으로 끝나는 트러블의 악순환 앞에 한국 가는 날을 손 꼽아 기다렸다는 김처음양! 무엇보다 체류기간동안 피부를 원래로 되돌리고 싶다는 그녀다.



유학을 떠날때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마음이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올때는 노곤함과 피부트러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도 짜도 계속 올라오는 여드름으로 차앤박피부과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김처음양의 처방전은 바로 **스피쿨링-A**와 **PDT**다.

스피쿨링-A 치료는 길고 가는 모양의 천연 스피쿨이 피부의 진피층 상부까지 침투하여 스피쿨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활성 물질이 피부 속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항염, 피지조절, 진정 작용을 하여 근본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하고 72시간 후에는 각질과 함께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원리다. 여드름 치료나 스케일링으로도 잡히지 않는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여드름과 피부톤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염증성 여드름이 대부분인 청소년기 여드름치료에 효과적인 PDT는 여드름균과 확장된 피지선을 파괴 시킴으로써 약을 먹는 것보다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2~3번의 치료로 10개월 이상 여드름을 덜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PDT는 확장된 피지선을 파괴시키므로 여드름 발생을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여드름이 생긴 후 손으로 짜거나 할 경우 자칫 흉터와 자국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치료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5일 정도 지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지만 대략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치료 부위가 깨끗해진다.

2단계

여드름자국치료 V빔레이저, ERT레이저필링

지난 차안박피부과 방문으로 무사히 피부트러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러블이 남긴 붉은기와 갈색 염증성색소침착이 어느새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여드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그가 향하는 곳은?

혈관에 있는 붉은 색을 띄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확장된 혈관을 없애고 정상적인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치료하는 **V-beam 레이저**. 이상혈관의 혈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혈관만 파괴하여 여드름 붉은 자국에 매우 효과적이다.

ERT레이저필링은 피부표피층의 묵은 각질을 레이저로 필링하고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톤을 밝게 하고 피부결은 실크처럼 매끄럽게 해준다. 여드름 흔적으로 인해 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된 부위를 개선시켜 준다.



3단계

여드름흉터 모공치료 DRT진피재생술, 인트라셀

유학생활 2년차를 맞는 박재진 군. 귀국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유학생활도 어느정도 적응했고, 이제 좀 여유롭게 방학을 즐길 상황은 되었다. 문제는 여드름흉터와 고배울 모공이다. 치료하기 까다롭다는데 이를 해결해 줄 구세주는 어디?

한결 여유를 찾은 박재진 군. 여드름 및 트러블 치료와 학교로 돌아가서의 꼼꼼한 홈케어를 통해 어느정도 염증은 잠잠해졌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와중에 진피층까지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와 칙칙해진 피부톤을 점령하는 것. 흉터치료의 레전드인 DRT진피재생술을 제안한다.

DRT진피재생술은 말그대로 진피층에 수천개의 미세한 열치료 존을 만들어 진피내에서 스스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회복시간)을 거쳐 재생기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여드름 흉터 치료의 신기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 3-5회 정도 시술을 권장하고 있다.

인트라셀은 인트라셀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들어간 후에 피부 진피층 부위에 순간적으로 고주파(RF)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노화된 손상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콜라겐이 촘촘하게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서 모공은 몰라보게 조여져 아기피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4단계

피부톤해결 MOST프로그램

칙칙해 보이는 피부톤. 사람의 욕심의 끝은 어디 까지일까. 도자기 같은 원래의 내 피부로 돌아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요즘 대세인 피부톤 해결에 신경쓰게 된다. 또한 낮빛이 좋아야 한다는데 이 칙칙함을 탈출 할수 있는 방법은 ?

한결 여유를 찾은 김고급 군. 여드름 및 트러블 치료와 학교로 돌아가서의 꼼꼼Master of skin tone!! **MOST프로그램**으로 얼굴 전체의 피부톤이 균일하고 생기넘치며 매끄러움을 추구해야 하는 피부톤의 문제를 해결한다. 화이트닝보다 한단계 더 까다롭게 관리가 필요하며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매칭으로 짧은 기간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단계

외모 + 사각턱보톡스, 필러

취업준비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취업 양. 이제 유학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한참이다. 스펙관리에 지금까지 정성을 다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미테크의 향연이다. 무엇보다 흐트러진 페이스라인을 잡고 인턴십이나 대기업의 취업 동향도 놓치지 않고 있다.



차분히 취업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미테크가 필요한 시점은 따로 없다. 바로 그 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동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다. 3주 이내에 완성되는 **사각턱 보톡스**와 일주일 동안 코를 높이고 얼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필러**를 처방한다.

보톡스를 이용한 사각턱 교정은 5분 내외, 4-6대 정도의 주사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바로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필러의 장점은 주사제로 만들어져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주름, 패인 볼, 얇은 입술, 낮은 코, 무턱 등에 시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마주름, 코와 입 사이의 팔자 주름 등 굵은 주름에도 즉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필러는 시술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차앤박과의 인연, 내 빛나는 피부의 유지 비결이죠! 배우 왕빛나

왕빛나

드라마 마니아들은 요즘 즐겁다. 종합편성채널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썸 스틸러(Scene Stealer) 반열에 오르는 조연급 배우들을 만나게 되는 일도 즐거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빛나는 외모로 시청자에게 돌아온 왕빛나씨가 더운 반가운 이유는 차앤박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름만큼 빛나는 피부의 소유자인 왕빛나 씨는 놀랍게도 주부이면서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세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차앤박과의 인연은 아주 우연에서 필연으로

타고난 피부를 소유한 그녀지만 불규칙한 촬영 스케줄과 밤샘 촬영으로 인한 피로는 피부 건강을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쉼없이 연기자의 길을 걸은 그녀이기에 이러한 근무환경의 변화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인 것. 다른 연예인들도 즐겨찾는다는 차앤박피부와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평소에 바빠서 피부과치료를 생각도 못했지만 차앤박피부와만의 연예인 케어로 통하는 진정보습 특화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부담없이 피부에게 힐링감을 주는 그 편안함이 좋았다고 한다.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큰 슬럼프 없이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연기도 저에겐 직업이기 때문에 연기든 MC든 제 역량이 된다면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을 위한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피부과에서의 힐링감을 집에서도 느끼게 해 준게 차앤박화장품의 프로폴리스 에너지 세럼이라고 한다. 피부과를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파우치에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 항목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니아로 발전하다 보니 차앤박과 인연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차앤박의 메인 모델로 활동 중이다.

꿀광피부, 꿀피부, 그녀만의 꿀광 메이크업



최근 유명 사극에서 남녀 주연배우의 뽀루지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요즘에는 디지털TV의 등장으로 연기자의 피부 잡티 하나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리얼스킨에 대한 니즈가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단순 메이크업만으로 기본적인 트러블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

언제부터인가 왕빛나하면 꿀피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그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애착이 더해 졌다고 한다. "여자라면 누구나 꿀피부를 원하잖아요. 저는 직업이 연기자다 보니까 더욱 그래요. 기본이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잖아요. 차앤박피부과와 화장품을 통해 꿀피부라는 닉네임이 생긴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내 이름대로 정말 왕빛나가 되어 버렸다고 주위에서 이야기 해요."

가족의 힘이 행복한 연기자의 승승장구 왕도조

최근 왕빛나는 MBN 새 주말미니시리즈 '사랑도 돈이 되나요'에서 극중 한물간 톱스타 홍나나 역을 맡았다. 왕빛나는 극중 자존심이 강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헛똑똑이면서도 솔직하고 털털해서 미워할 수 없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캐릭터다. '사랑도 돈이 되나요'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왕빛나는 '표정엔 백치미, 몸매엔 섹시미'라는 시청자 평을 들었을 만큼 다양한 매력을 한 몸에 가진 배우다"라고 극찬했다.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왕빛나는 연기 분수령은 무엇일까. "가족들의 지지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 했지만 사랑하는 아이는 든든한 후원자죠. 엄마를 찾을 나이인데도 이제는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의젓함을 보인답니다." 행복한 그녀의 미소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미소 그것이다. 또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한 여자의 모습이다.

연예인 중에서도 건강하게 빛나는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로 소문난 왕빛나 씨. 앞으로는 화수분같은 연기력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배우로 차앤박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 같다.

16년의 나이테! 우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이저 차안박피부와 양재본원

생긴대로 쓰고, 쓰는 만큼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글쓰기는 신체를 단련시키고 나아가 운명까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인데 체득하듯이 알게 된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순간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켜 준다. 글쓰기로 대변되지만 이는 평생공부를 해야하는 '교육'의 문제로 통한다. 개원 16주년을 맞은 양재본원을 다시 찾으며 '교육'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양재본원의 내공은 이러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런지



빡빡한 교육스케줄, 그만큼 견고한 결속력의 지렛대

매주 토요일 이른 시간. 오픈 시간이 한시간 남짓 남았는데 활기가 넘치는 병원 내부. 누가 뭐랄 것 없이 정도있게 교육 준비에 임하는 양재본원 가족들은 토요일이면 더욱 지각이 없는 날이기도 하다."각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내부집중교육에 이어 2010년부터 도입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작년에 도입한 온라인 교육까지 크게는 세가지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교육이 이뤄집니다. 한 달 단위로 3가지 과정을 맞추다 보면 1분기가 지나가는데 최근 도입한 온라인 교육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교육 총괄기획자인 김정아 과장의 설명이다. 사실 근속년수가 평균 5년 정도 되는 직원들에게 서로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내부집중교육은,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니 유명무실해진 게 사실이다. 이에 내부집중교육은 심화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라인교육을 도입했다. 온라인교육은 전직원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문답을 나누는 것인데 굳이 병원의 서비스 교육외에도 고객응대를 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귀뻘했다.

개원 16주년, 항상 리딩지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게 돼

1996년 개원 이래 16년의 나이테를 만들어 가면서 양재본원은 지역의 피부주치의를 넘어 경기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지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는데 걱정 수준의 긴장감을 주다 보니 더욱 체계화 되는 거 같고 긍정의 힘으로 정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박미숙 수석실장은 “일부러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본원이니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리딩 지점이라는 사명감이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면서 ‘16년의 나이테’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 이야기 한다. 김지은 피부과전문의는 무엇보다 우리 지점은 직원들과의 환자, 의료진의 삼박자가 잘 맞는 거 같아요. 장기고객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생애주기가 병원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오는 고객들이거나 다른 원장님 환자였던 분들이더라도 직원들이 메모로 정보를 건네주는 작은 배려가 환자와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라고 양재본원의 내공을 설명했다. 권현조 피부과전문의는 “환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졌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환자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느때보다도 의료진과 직원들과의 호흡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재본원은 직원들의 프로의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체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스마트한 고객의 수준에 맞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함으로 감동을 주더라고요.”



교육사관학교, 그 악명(?)이 모두에게 '꽃'이 되다



교육을 많이 하는 지점으로 악명(?) 높은 양재본원의 썹크테크인 김정아 과장은 “베테랑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의료현장에서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비책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얻는 게 참 많아요. 직원간의 유대는 물론 고객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정립도 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육기획에 임하고 있는 박미숙 수석실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보니 병원을 위한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직원 개개인에게 동기부여와 일하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자인 우리들 역시 자극을 받고 더 나은 방안들을 고민하게 된답니다. 진정한 win win 인 셈입니다.”

두 브레인과 그들을 잘 따라주는 직원, 그 직원들의 노련함으로 인한 고객 행복이 16년이라는 나이테를 만들어 온 양재본원의 역사의 한천한켄이다. 그리고 그 내공은 낭중지추처럼 어디에서든 빛을 발한다. 양재본원이 본원인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팀,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죠”

최강 **파랑** 팀! 남영자, 송정승, 고윤선, 김다희, 한채린



양재본원의 교육 중 가장 직원의 참여도가 높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일등을 하고 있는 최강 파랑팀을 만났다.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양재본원에 가면 항상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던 면면의 직원들이었다. 1위 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모두들 땀시레 웃는다. “우리 발표의 기준은 재미있고 쉽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UCC를 만들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줘서 단 몇분을 발표하더라도 듣는 동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특징상 집중력을 높이는 PPT 발표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남영자 간호사는 무엇보다 준비하는 팀원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흥미로운 발표와 참신한 정보제공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주제가 정해지면 우선 팀원들끼리 아는 만큼 정보를 공유해요. 그리고 팀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메모하죠. 그러다보면 주어진 주제의 단조로움이 입체적으로 바뀌게 되고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테이션 송정승 팀장의 말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고 했다. 흡사 퍼즐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주어진 주제에 원래 답이 있었던 것처럼 탐구해 가는 작업이 즐겁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팀’이라는 유대관계가 생겼다고 한다. 모든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만 눈인사라도 한번 더 건네게 된다는 그녀들. 어딘가 닮은 듯한 그녀들의 미소가 빛난다.

수줍은 내 피부, 광명찾다 글쓴이 : 김근아

항상 수줍기만 한 내 피부. 사실 난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닌데 내 피부는 유독 수줍음이 많다. 이름하여 붉은기가 내 마음보다도 먼저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시기만 되면 회자되는 안면홍조는 아닌것 같고, 모세혈관 확장증. 나름대로 인터넷 서핑을 통해 내 피부와 대입하며 그에 맞는 치료와 병원찾기에 열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답은 알 수 없었고, 어느 정도 메이크업으로 커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치병으로 가져가야 하는 뭐 그런 운명(?) 같은 피부라고 생각하며 20여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붉은기의 해결책을 찾아보다

내 눈을 번쩍 띄이게 하는 레이저를 발견했다. V빔레이저!!! 붉은기 치료에 특효란다. 이에 폭풍 서핑에 들어갔다. V빔의 존재에 대해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난 왜 물랐을까 그동안 V빔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찾아본 결과 V빔은 혈관에만 작용하는 레이저로 붉은기 제거와 안면홍조, 모세혈관확장증, 여드름 붉은 자국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내 얼굴을 붉은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여드름 붉은 자국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안면홍조, 아님 태생적인 붉은기!! 알쏭달쏭한 이 생각들을 한번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방문했다. 용기를 내어 본 것이다.



V빔 지피지기

최근에는 혈관에 있는 붉은 색을 띄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확장된 혈관을 없애고 정상적인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치료가 V-beam 레이저라고 한다.

이상혈관의 혈관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혈관만 파괴하고 콜라겐을 재생시켜 점차적으로 잔주름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피부표면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딱지가 생기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단 마취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취를 하지 않고 레이저를 받다니 화들짝 놀라는 나에게 "마취를 하게 되면 혈관의 붉은 색이 감춰질 수 있고, 견딜만한 통증"이라고 담당 원장님이 귀띔했다.

여드름자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꿀 수 있게 되다

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붉은기가 있다가 보다는 여드름 붉은 자국에 코전반, 코 양쪽 골 부분에 잘리잡아 있다. 이른바 팔자주름의 스타트 라인이라고 한다. 여드름 붉은 자국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흔히들 코 가장자리 부분의 붉은기는 지나치기 쉬운데 팔자주름을 깊어 보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를 전반적으로 칙칙해 보이도록 한다고. 내 피부가 이 유없이 붉어 보이고 뭔가 투명해 보이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V빔레이저 시술에 앞서 좁쌀여드름 치료부터 진행했다. 염증성 여드름은 아니지만 잇을만 하면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쌀 크기의 여드름때문에 적잖이 마음 고생했던 게 사실이다. 상담 받을 때부터 레이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여드름 치료까지 병행하게 될지는 몰랐다. 좁쌀 여드름이라 짜기가 더 까다로운 것일까. 사실 좀 아팠다. 항상 여드름 압출은 아프다. 초음파 각질제거에 이은 압출, 그리고 비타민C 흡수, 마스크, 재생레이저 순이었다. 그리고 두둥 드디어 V빔레이저를 받기 위해 레이저 실로 옮겼다. 마취를 하지 않아서 인지 더욱 겁이 났다. 많이 아플꺼야 괜찮을꺼야 마음속으로 꽃잎을 하나씩 뜯어내며 마음을 다졌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팠다. 참을만은 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난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으므로 어느정도 학습된 통증이었지만 코부위의 경우 연골조직이라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담당의의 말처럼 아프긴 했다. 하지만 레이저 이후 조금 더 붉어진 것 외에는 진짜로 다른 문제는 없었다.

담당의는 시술후 더 붉어진 다음 서서히 붉은기가 사라진다고 한다. 모기 물린것처럼 붉은기는 이틀정도 갔는데 3일째부터는 사라졌다. 이후 1차적인 변화는 피부결이다. 좁쌀 여드름이 많았던 나로서는 V빔레이저 전에 받았던 기본적인 여드름 집중 케어가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 집중치료 이후 더 붉어진 얼굴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그 놀람이 매끄러운 피부로 보상되는 것 같아 기쁘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붉은기 완화는 왼쪽부터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3주, 4주가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내 피부가 기대된다. 항상 수줍기만 했던 내 피부에도 봄이 올 것 같다.



치료 전후사진

BEFORE

AFTER



오른쪽 볼

BEFORE

AFTER



왼쪽 볼

레이저로 치료하면 제모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모발클리닉 한일웅 대표원장



Q

5월인데요, 제법 무덥습니다. 이제 노출을 생각해야 할 때인데 겨드랑이 제모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 입고 바닷가를 활보하고 싶은데요, 레이저로 치료하면 제모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번 받아야 하나요? 지금 받아도 늦은 건 아니겠죠?



모발클리닉 한일웅 대표원장

제모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알קות게도 여름에 노출을 하기 위함이라면 겨울부터 제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5번의 시술을 거쳐야 영구 제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로 제모를 하면 한번에 털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3~5회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레이저시술 시 생장기 털의 모낭을 파괴해야 털이 다시 나지 않는데 실제 보이는 털의 20-40%만이 생장기 털이기 때문에 **수술 후 난 털은 제모 된 털이 다시 생겨난 게 아니라 피부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생장기 초기 털이거나 퇴행기 혹은 휴지기 털이므로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애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술시기는 생장기 털이 5mm 정도 자랐을 때이며 제모술을 받은 후 6~8주 정도가 가장 적합한 제모 사이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술의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18~40주 정도 소요되는 제모 사이클을 감안해 겨울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 되어 준비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노출이 없을시에는 간과하고 1~2회 시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영구제모는 요원해지는 일이 악순환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구 제모가 될때까지 주치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어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그러면 매년 제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또한 제모를 위한 가격비교를 많이 하는데 가격보다는 영구 제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제공해주는지에 대해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모시술 받기 전 몇가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치료 전까지 피부를 태우지 않도록 합니다. 선탠을 한 경우는 치료시 화상 등의 부작용 위험때문에 2~3개월 후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 2** 피부가 짙은 사람은 미리 미백연고를 2주~4주 정도 바른 후에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는 멜라닌 색소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짙은 부위의 레이저제모는 주의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 3** 가급적 치료 4주내에는 뽑기, 왁싱, 전기 제모를 피합니다. 레이저 광선이 털을 매개로 모낭 세포를 파괴하는데 털이 없는 빈 모낭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 차앤박네트워크 상반기 워크숍 고객을 품은 차앤박피부과, 그 내공을 누설하다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MBC의 '해를 품은 달'이 한 여인에 대한 순정을보여주는 것이라면 차앤박피부과를 내원하는 고객에 대한 마음 '순정'이다. 해를 품은 달처럼 고객을 품은 차앤박피부과의 내공이 누설되는 현장이 지난 3월에 포착되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올 2012년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망한다. 비관적인 세계경제 전망 속에서 우리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불경기라는 이름으로 쓰러지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차앤박피부과만의 내공의 근원이 공개되는 자리였다.

이번 상반기 워크숍 진행은 첫째, 차앤박네트워크의 핵심역량을 강화 둘째, 병원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내/외부 고객분석,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 차별화 전략으로 차앤박피부과의 비전을 만들어 장,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효과적인 고객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되었다.



차안박피부와 웹진 : 차안박스토리 > CNP NOW

‘차안박네트워크 고객 및 환경 분석을 통한 2012 우리 병원 비전 수립을 위한 주제강연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강좌가 이어졌다. 17지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병원 만의 ‘내공쌓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2012 우리 병원 비전만들기의 마지막 미션인 ‘우리에게 고객은 ()이다’의 괄호넣기는 고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관리자 워크샵 후기

나는 차앤박이다 멋졌어요
지루할법도 한데..
교육 듣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교육을 통해 다시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교육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감탄하고 갑니다.
지친 심신 다시 100% 충전 했습니다.

고객행복 ↑ → 나의행복 ↑,
나의행복 ↑ → 고객행복 ↑
차앤박 패밀리 파이팅!!
내가 진짜 차앤박이다.

오늘 교육내용 꼭꼭 씹어서
100% 소화시켜! 전정터로!
내일 돌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위한 내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